

가네보섬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재들

1) 「키랏트 C」

일본의 가네보섬유는 섬유의 단면이 C자형으로 된 중공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와 세번수 면사를 교직(交織)한 오리털 이불잇을 주력상품의 하나로 키우기로 전략을 짜고, 금년(2001년)부터 60수 단사×50데니어 주자직과 100수 단사×50 데니어 주자직의 2종류를 매달 100필 규모로 계속 생산하고 있다. 1m²당 직물중량은 60수 단사직물은 98g, 100수 단사직물은 87g으로 가볍고 얇은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공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는 슬릿(slit) 모양의 중공 때문에 땀이나 습기를 흡수발산하기 쉬우며, 온기(溫氣)를 잘 유지해 준다. 세탁을 되풀이하여도 줄지 않고, 언제나 같은 통기성을 갖는 점도 자랑거리가 되고 있으며, 진드기에 대한 방충성도 좋다.

2) 「코스모 α」

극세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코스모 α」를 교직한 오리털 이불잇도 「키랏트 C」와 함께 주력상품으로 매달 100필 규모로 계속 생산할 체제를 갖추었다. 이들 두 상품이 이 회사의 앞날을 거머쥔 간판상품이 될 것 같다.

「코스모 α」에는 경사에 60수 순면 단사를 교직한 주자직물과, 경사에 80수면·레이온 혼방 단사와 교직한 주자직물의 2종류가 있다. 부드러운 촉감이 자랑거리가 된다.